**막0536 (4) Note**

**◆ ​​믿음이란? - 변승우 목사**

◇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임의적으로 면제시키고 율법의 대용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간주될 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매개체 또는 도구로 하여 의롭다 함을 얻을 뿐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가 있는가? 다른 것으로는 안되는가?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유는,

믿음 안에 존재하는 그 탁월함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

이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맺고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몸의 지체들이 머리에, 아내가 남편에게 연합되어 있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케 함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즉 믿음이 성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수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거룩해지면 그들의 과거의 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될

것입니다.

즉 사람이 믿음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은

그 믿음과 거룩함 자체를 보시고 용납된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마치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취급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는 율법준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 자체가 의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여 거룩함을 낳았기 때문입니다(찰스피니)

롬1004. 이는 그리스도는 믿는 낱낱의 자에게 '법적 깨끗함'에 대해서는, 법(法)의 종점(텔로스: 한계로서의 도달점,행위나 상태의 결국,종착,결과,목적,완성)임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입니다(존스토트)

성화와 칭의는 물론 분명히 구별되는 상이한 것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으로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거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거룩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의 죄를 용서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늘나라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

마치 사람이 병중에 있으면서 동시에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모순된

것이다.”